

# 젊은 시인의 '5·18 悲歌'

### 광주 출신 오성인 시인 두번째 시집 '이 차는 어디로 갑니까' 발간

### 오월 상흔·소외된 이웃 담아 "광주는 슬픔의 발원이자 시의 본령"



두번째 시집 '이 차는 어디로 갑니까'를 펴낸 오성인 시인.

"남도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제 나름의 호흡과 감각으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광주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비극과 슬픔의 발원지이자 제 시의 본령이라 할 수 있어요."

광주 출신 오성인 시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오월의 상흔을 대면하는 일이다. 그는 "광주를 말하지 않고서 시를 쓸 수 없다"고 했다.

80년 오월의 세대도 아니고 젊은 시인이 광주를 주요 모티브로 시를 쓰는 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그에게 광주는 '극심한 사회 모순과 비극의 역사'를 논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례와 같은 도시다.

오성인 시인은 세상의 시류에 맞추지 않고 성실하고 진중하게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느린 듯 하지만 두박두박 자신만의 작품을 쓰고 있는 오 시인이 최근 두 번째 시집 '이 차는 어디로 갑니까' (걷는 사람)를 펴냈다.

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은 여전히 성실한 청년 문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적잖은 상처들이 깃들어 있다. 그 상처는 시인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연유된 것도 있다.

이번 시집에 무려 '아버지'라는 시어가 구십 여 차례 등장한다. 시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아버지는 1군단 부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부로부터 '부대 근처 야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 오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부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대량의 나무(백달나무)를 베어 부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다듬고 옷질해 군용트럭에 적재했어요. 며칠 뒤 '충정봉'으로 명명된 이 진압봉은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내려와 있던 3, 7, 11 공수부대에 지급됩니다."

당시 '충정봉'은 무고한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살인도구'로 쓰이게 된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그의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졌다 한다. 당신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자칭했다는 것이다. '뺨에 사무친 말'이라는 작품이 그런 아버지의 심상을 대변한다.

"어디를 가서 어떤 장소가 되었든 누구를/ 만나게 되거든// 나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아라/ 숨이 끊어지면 이미 오래다 나는/ 죽었다는 말이다"

한편으로 시인은 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시간이 되 동시에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의 화자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으려 했던 것은 그런 연유일 것이다.

"이번 시집에서 작중 화자 대부분은 과거인 유년과 현재인 성년을 오가며 증언을 하고 대화를 청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시에 제 목소리를 투영하지 않으면 자칫 타성에 젖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요."

"나는 얼굴에서 이름보다/ 죄책감이 먼저 읽히는 사람"(오해)라는 고백에서 보듯 시인 역시 아버지처럼 내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오늘날 비극의 역사 중심 이면에 '광주'가 있다는 것을 아프게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인은 피폐해진 도시와 사람을 주목하기도 한

다. 깊은 상처를 지니고도 존엄을 훼손하지 않으며 성장하는 인간을 응시한다. 울분과 슬픔은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들려준다. 시 '매미'에서 "모든 그들은 누군가 울다 간 흔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의를 전제로 한다.

시인은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틈이 문학강연을 하거나 고교 백일장 심사, 지역 도서관 올해의 책 심사 등을 하며 창작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읽고 쓰는 일의 무한 반복"이라는 표현대로 일상에서 글 쓰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오롯이 시를 쓰는 일은 분명 버거울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이 젊은 시인은 한눈 팔지 않고 시의 길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그에게 '시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온다.

"역사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해주고 '제 자신을 제 자신답게' 이끌고 질책하는 구원입니다. 물론 타인의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는 '최선의 연대' 방식이기도 하구요."

한편 오 시인은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를 발간했다. 대산창작기금과 나주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어로 풀어낸 '심상의 세계'

### 해남 출신 신남영 시인 두번째 시집 '명왕성 소녀' 펴내

"중머리를 넘지 못하는 나의 거문고는 아직도 진양조에 머물러 있다. 내가 닿지 못하는 짧은 산조의 끝에도 예인들의 독공의 시간이 담겨 있다. 천공(天宮)의 소리를 엿보고 엿듣는 일은 그 극점의 무진강산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 그것은 언어로 진세(塵世)를 건너가고자 하는 한 수행자(修行者)의 비망기(備忘記)인 것이다."

시인의 말에서 그가 상징하고 있는 시의 지점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한다. 시인이 생각하는 시의 경지는 어디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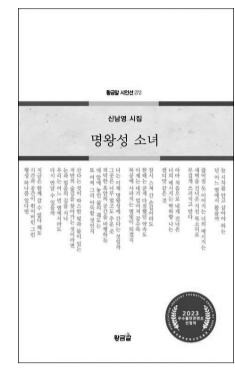
해남 출신 신남영 시인 두 번째 시집 '명왕성 소녀' (황금일)를 펴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이기도 한 작품집은 독특한 심상을 형상화한 시들로 채워져 있다.

호병탁 문학평론가의 표현대로 "그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치는 바로 이런 심상과 비유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늘 시자를 안고 살아야 하는/ 너 어느 별에서 왔을까// 끊어질 듯 이어지는 너의 메시지는/ 새벽을 건너는 지친 목소리로/ 무겁게 쓰러지고 만다// /아마 처음으로 내게 건너온/ 너의 메시지는 박하향 나는/ 캔디맛 같은 것// 잠시 스쳐 간 손길이라도/ 한때는 굳게 다잡았던 약속도/ 이제는 네가 멀어져 갈수록/ 허공에 사라지는 별빛이 되겠지..."

위 시 '명왕성 소녀'는 화자의 상상을 시어로 구



체화한 정갈한 작품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소행성인 명왕성을 사랑으로 빛내 아파게 그리고 있다. 화자는 멀고 먼 행성으로 떠나려는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말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의 끈도 놓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 휘어버린 그런 행성 하나쯤 있다면" 혹은 다시 재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 '복 치는 소년', '마른 발굽이 보인다', '늦기를 저 갈가마귀는', '하늘의 소리를 엿듣다' 등의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문기가 가득하다. 시인의 심상에 드리워진 순하면서도 애뜻한 감성이 오랜 여운을 준다.

호병탁 문학평론가는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밝고 환한 정서와는 거리가 먼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다"며 "그러나 직선으로 뻗은 대로도 좋지만 산파라 물 따라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고 평한다.

한편 신 시인은 2013년 '문학달'로 등단했으며 시집 '물 위의 현'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음향 제작·녹음 기술 전문가에 무료 수강

### 다음달 2~26일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4기과정 운영



지점에서 진행된 전문교육 과정 장면.

(지맵 제공)

사운드 관련 음향 제작과 녹음 기술 등을 교육하는 전문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G.MAP, 이하 지맵)은 제4기 과정을 오는 9월 2일부터 26일까지 연다.

강의는 주중반(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말반(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각 4회 강좌로 구성됐다. 각 5명 이내를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 이메일(gmap@korea.kr)로 신청서 접수받으며 수강신청 서류는 지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된다.

4기 교육과정의 초청강사는 임주신(Bay스튜디오 대표), 박상범(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제작센터 음향감독)이 각각 주중반과 주말반을 담당한다.

임주신 감독은 뮤지컬 알피 작곡가이며, 뮤지컬 리틀 뮤지션 음악감독, 광주시립극단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박상범 감독은 동국대 영상대학원 컴퓨터음악을 전공했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창작제작기술팀 사운드 테크니션을 역임했다.

이번 4기 과정도 1-3기와 같이 수요자에게 지맵 녹음 스튜디오 및 편집실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지맵 주관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호 지맵 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미디어아트 기반 문화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MAP은 다채로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호남권 시민·단체 대상 폭력예방 교육

### 광주여성재단, 5대 폭력 주제 전국 방문...참가자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 이하 재단)은 성폭력 확산 방지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202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자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호남권역 프로그램은 재단이 담당하며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주민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 민간기업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이 필요한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인턴, 구직자, 문화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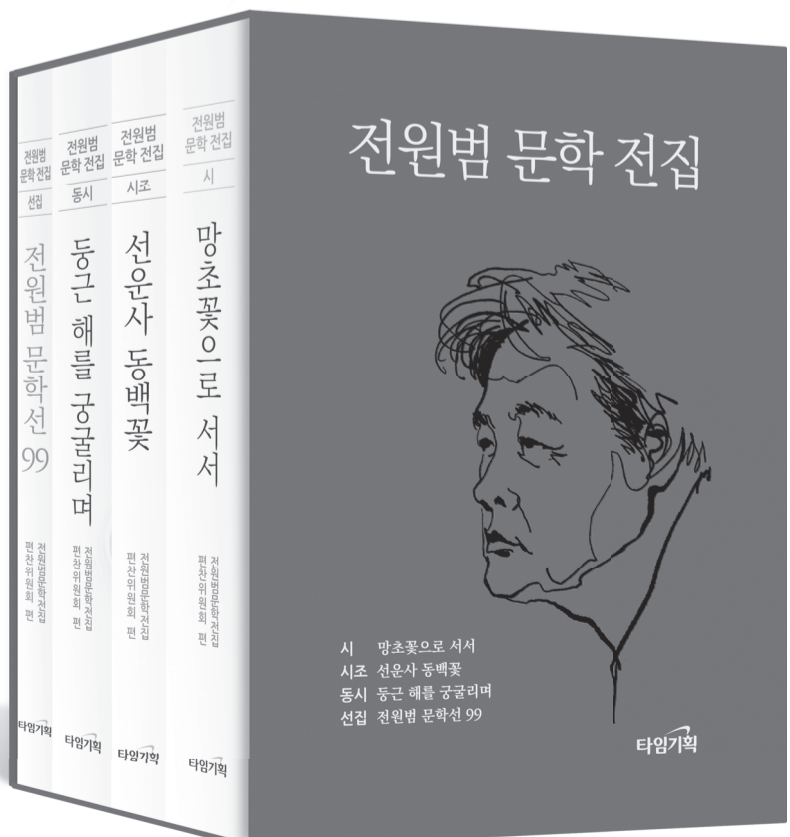
등이 교육을 신청하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5대 폭력 분야인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을 다루며 분야별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10명 이상부터 100명 내외의 인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는 교육에서 제외.

교육비 무료. 참가 신청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나 재단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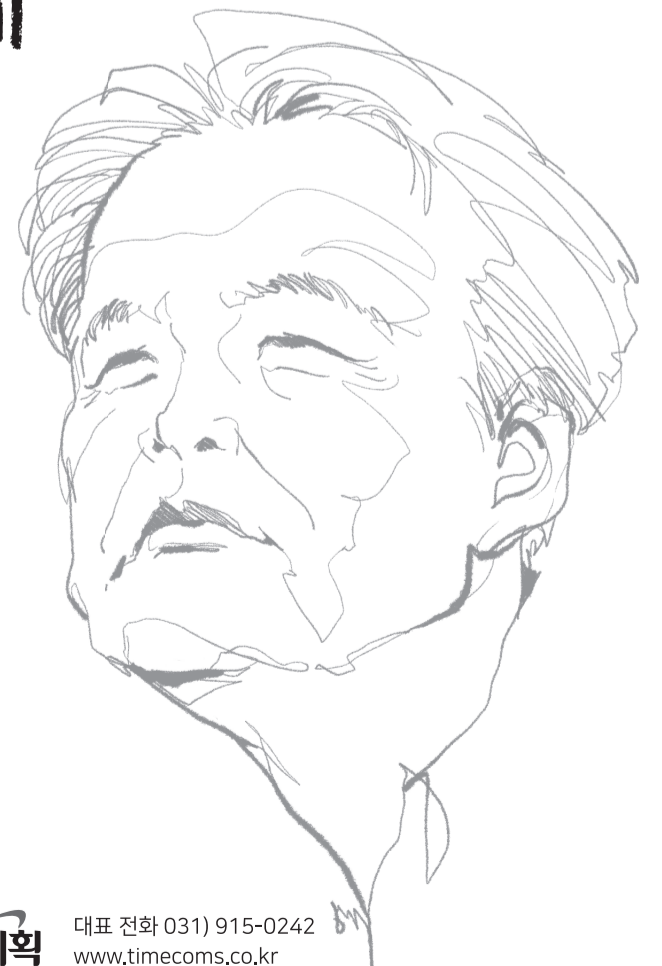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몽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